

힘들수록 나눔 키운 '착한가게'... 광주는 따듯했다

월 3만원 기부 지난해 6658곳 10억 5천만원...전년보다 1189개 늘어
 폐업률 전국 2위 경제난 속에도 광주의 공동체 정신은 오히려 빛나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서 미용실 '클레오파트'를 운영하는 조현주(여·59)씨는 지난해 말 가게 입구에 '착한가게' 명패를 다시 내걸었다. 아미용 봉사와 라이온스 후원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조 대표는 10여 년 전 이미 착한가게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한때 기부를 중단해야만 했다. 나눔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작은 돼지저금통이었다. 지난해 말 가게에서 틈틈이 모은 잔돈이 담긴 저금통 20여만 원을 동행복지센터에 기탁하며 나눔의 기쁨을 다시 느낀 것이다. 그 길로 조 대표는 착한가게 재가입을 결심했다. 조 대표는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 모두가 힘들지만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강조했다.

강성운(68·세동산업)씨는 지난 2015년 착한가게에 가입해 10년째 매달 3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릇 닦기, 신문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배고픔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주변을 더 살피게 됐다"고 했다. 나눔에는 아내 박춘화(65)씨도 함께하고 있다. 박씨가 지난해 착한가게 동참을 결정하며 부부가 나란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씨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로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지역 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한 쪽이라도 나누려는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5일 광주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매달 매출의 일정액(최소 3만원)을 기부하는 '착한가게' 가입 접포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4599곳이었던 가입 접포는 2024년 5471곳으로 늘더니 지난해 6658곳까지 급증했다. 기부금 역시 2023년 7억 3534만원, 2024년 8억 3453만원, 2025년에는 10억 5473만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광주는 착한가게 가입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압도적인 나눔세를 보이

고 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수도권 주요 도시들을 제치고 거둔 성과로 '나눔의 도시' 광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는 2008년 8월 다사랑의료재단과 신세계내과영상의학과과원을 시작으로 약국, 미용실, 카센터, 학원, 식당 등 업종을 불문하고 골목 상권 곳곳에서 나눔 행렬을 잇고 있다.

기부 열기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처한 혹독한 현실과 대비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국세청 통계상 지난해 광주 지역 폐업 사업자 수는 2만 6062명, 폐업률은 11.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고금리와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광주 DNA'가 발현된 셈이다.

광주사랑의열매가 구축한 지역 밀착형 기부 시스템도 나눔 문화 확산의 일등공신이다.

사랑의열매는 광주 97개 동 중 76곳과 '연합모금 협약'을 맺고 있다. 기부자가 낸 성금이 자신이 속한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구조다.

광주 서구는 기부와 소비, 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492개소의 신규 업소가 착한가게 현판을 달았다. 이는 광주 신규 착한가게 1147곳 중 42%에 달하는 수치다.

광주 서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냈다. 기부금을 쿠폰으로 발행해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고 이 쿠폰을 다시 지역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광주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모인 성금은 명절 음식 나눔, 여름철 보양식 지원, 주거 환경 개선, 결식 우려 가구 밀반찬 배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불황 속에서도 피어난 광주의 나눔 정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가입은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또는 광주사랑의열매 대표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옛 전남도청 '5·18 모습 재현' 한창

5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시민 체험용 소품인 '시민군 지프차'(왼쪽)와 1980년 당시 모습을 재현한 전남도청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는 5월 중 옛 전남도청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는 5월 중 옛 전남도청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상습 정체' 봉선동·풍암동 숨통 트인다

서문로~봉선동, 풍금로~유통단지 확장사업에 국비 등 2001억 투입

광주에서 대표적인 '교통 지옥'으로 꼽히는 남구 봉선동과 서구 풍암동·유통단지 일대 도로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년간(2026~2030년) 추진할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주에서 채택된 사업은 풍금로-종합유통단지 혼잡도로 개선, 서문대로-봉선동 도로개설 등 2개

현안이다. 전체 사업비 2001억원(국비 753억, 시비 1248억)이 투입된다.

'서문대로-봉선동 도로개설' 사업에는 752억원(국비 211억)을 투입해 서문대로와 봉선동 내부를 잇는 연장 0.8km(4차로) 구간을 신설한다. 산을 관통하는 이 도로가 뚫리면 운전자가 백운광장이나 용산지구로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32분인 통행시간은 11분으로 단축되고 시속 19.1km에 불과했던 통행 속도도 시속 48.1km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병목구간인 '풍금로-종합유통단지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는 1249억원(국비 542억)이 투입된다. 풍암지구 입구 교차로 등에 연장 1.08km(6차로) 규모의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신호 체계를 변

경한다. 이곳은 제2순환도로 진·출입 차량과 매일 종합상사 등 대형 물류 차량이 뒤섞여 '꼬리 물기'가 기승을 부리던 곳이다.

사업 완료 시 해당 구간 통행시간은 기존 18분에서 5분으로 13분 단축되며, 통행속도도 시속 10.0km에서 35.2km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국가 계획 반영의 최대 성과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실제 공사비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최종 선정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공사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밀라노 올림픽 내일 개막...한국 금 3·10위 목표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이 7일 오전 4시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19면〉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2900명이 참가해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산악스키를 포함한 8개 종목, 16개 세

부 종목에서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대결한다.

한국은 71명의 선수를 포함한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노린다.

'배주보이' 이상호가 한국 메달 레이스 시작을 알린다. 2018년 평창 대회 스노보드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설상 첫 메달 주인공이 된 이상호

는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한다.

'여제' 최민정이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쇼트트랙은 10일 레이스를 시작한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여자 단거리 '쌍두마차' 김민선과 이나현 그리고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정재원을 앞세워 대회 막판 질주를 이끈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은과 남자부의 이채운은 설상 종목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응급실 뺑뺑이 막자는데 의사들은 반대 왜? ▶6면

복스 - '저항의 계보' '김영민 논어 연작' ▶14·15면

KIA 아미미 캠프 - 정현창 "기회 잡겠다" ▶18면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중 중교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곡수리 062)942-7200 / 일반전화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4MATIC · 배기량:2989, 공차중량:2145, 자동9단, 복합연비:13(도심연비:11.3, 고속도로연비:15.9),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8
 · S 45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90, 자동9단, 복합연비:10(도심연비:8.8, 고속도로연비:12),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S 450 4MATIC L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65, 자동9단, 복합연비:9.9(도심연비:8.6, 고속도로연비:12.1),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2
 · S 50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105, 자동9단, 복합연비:9.7(도심연비:8.4, 고속도로연비:11.7),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7
 · S 580 4MATIC · 배기량:3982, 공차중량:2150, 자동9단, 복합연비:8.6(도심연비:7.3, 고속도로연비:10.9), 등급:5, 복합CO2 배출량:20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